
Ⅲ

경영 상황

1. 조직 운영	89
2. 재무 현황	99

2022 경영 상황

조직 체계



데이터 관리 전담 조직 신설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연구 및
정책적 의사결정 체계 강화



기후변화 리스크 연구 전담 조직 확충

금융안정 측면의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 추진



지역경제 분석 조직 확충

지역사회 싱크탱크로서의
기능 강화

운영 방식



경영인사 혁신방안 마련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인 조직문화'로의
전환을 위한 직무권한 하부위임, 조직개편,
보고서 리뷰·공유 프로세스 마련 등



디지털 혁신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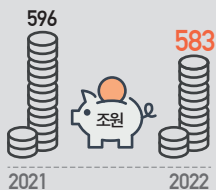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본격화,
통합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기술 적용 분석기법 마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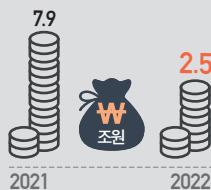
IT시스템 개선·확충

디지털워크스페이스 적용,
IT 사무환경 개선,
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 등

재무 현황



자산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처분

1. 조직 운영

2022년 중 한국은행은 「증장기 발전전략 (BOK2030)」에 따라 디지털혁신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직을 확충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운영리스크 관리조직을 정비 하였다. 더불어, 개방적·수평적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확정(2022년 6월)하고 혁신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 조직 체계

디지털 혁신 추진 가속화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연구 및 정책적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충하였다. 한국은행 조사연구플랫폼(BReiT)²⁰¹⁾ 가동(2020년 6월) 이후 업무자동화 및 각종 분석기능 개발 등 행내 데이터서비스 수요가 큰 폭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관리 전담조직인 「데이터관리반」을 신설하였으며,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지원하는 통합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해 프로젝트 조직인 「통합데이터플랫폼구축반」을 설치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하여 「전산정보국」 명칭을 「IT전략국」으로 변경하였다.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강화

기후변화 이슈가 대내외 경제환경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안

정 측면에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고 시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안정국내 연구전담조직인 「기후리스크연구반」을 신설하였다. 연구반은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금융안정 협의체 참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운영리스크 관리조직 확충

한국은행은 임직원의 윤리적 행동기준을 엄정하게 운용하고 고충처리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경영실」을 신설하였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산업안전관리반」을 설치하였으며, 증권커스터디 업무의 운영리스크 감축을 위해 전담조직인 「증권커스터디반」도 신설하였다.

지역본부 조사연구기능 강화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사회의 싱크탱크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사국 내 「지역경제부」를 설치하여 최고의 경제분석 역량을 보유한 본부 부서와 지역본부간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밖에 행정중심지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기 위해 「대전충남본부」의 명칭을 「대전세종충남본부」로 변경하였다.

201) 조사연구플랫폼(BReiT)은 2022년 12월 통합데이터분석시스템(BIDAS)로 확대 개편되며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기능이 강화되었다.

나. 조직 운영방식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전환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에 따라 직무권한, 업무수행절차, 직제, 평가 관련 제도변화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조직문화 혁신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⁰²⁾.

먼저 전 부서에 걸쳐 총재·부총재의 권한을 시작으로 부총재보, 부서장, 팀장 등 각 직책별 직무권한을 연쇄적으로 대폭 하부위임하였다. 이를 통해 관리자들의 책임 경영, 의사결정의 신속성 확보, 젊은 관리자 육성 등 조직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은행 내 상호 협력 및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보고서 리뷰 및 공유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회의, 행사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연구·정책검토 보고서 작성 시 부서 간·팀 간 사일로(silo) 제거 및 보고서 품질 제고를 위해 유관부서 사전리뷰 및 사후공유 원칙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적시 업데이트하고, 각 부서 주요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토론 활성화를 위해 주간 현안 포럼을 신설하였다.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총재와의 대화, 타운홀미팅, 행내 소통 이벤트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모두 함께 성장”이라는 모토 아래 직원들의 소속감과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기능직원 및 전문직원의 직급체계를 개편하고 성장·육성형 평가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림 Ⅲ- 1. 타운홀미팅 (2022년 10월 5일)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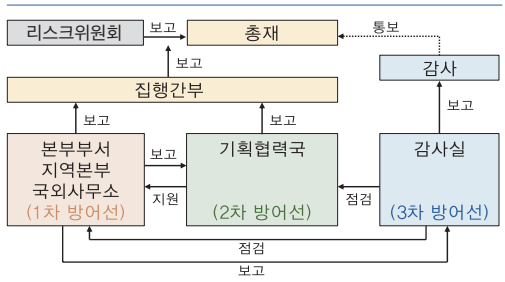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은행은 3중 방어모형(3-lines of defense model)에 따라 운영리스크²⁰³⁾를 관리하고 있다.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각 부서에서는 부국장을 ‘운영리스크 관리자’로 지정하여 동 관리자의 통할 하에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2차 방어선으로 기획협력국 내에 운영리스크 및 업무연속성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전행적인 차원에서 관련 업무의 기획·조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사실은 3차 방어선으로서 내부 감사 등을 통해 1·2차 방어선의 리스크 관리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Ⅲ- 1.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203) 부적절한 업무프로세스나 시스템, 직원관리 미흡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조직의 목표 달성이 저해되거나 재무적 손실, 평판 훼손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한다.

그림 III- 2.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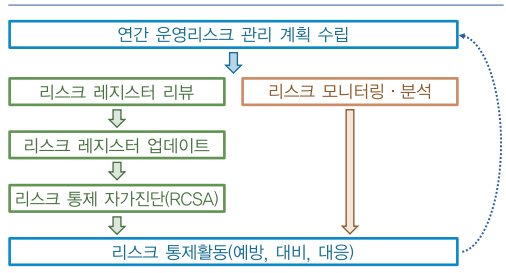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운영리스크 관리 업무는 「리스크 레지스터²⁰⁴⁾」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리스크 레지스터는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등을 포함한 리스트로 대내외 업무여건 변화, 행내외 발생 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

각 부서에서는 매년 리스크 레지스터 기반의 리스크 통제 자가진단(RCSA, Risk & Control Self-Assessment)을 실시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인식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협력국은 모니터링 및 행내외 발생 사건 분석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 전 세계 중앙은행 등의 운영리스크 관리자 모임인 IORWG(International Operational Risk Working Group)²⁰⁵⁾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각국 중앙은행의 운영리스크 및 업무연속성 관리와 관련한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다.

그림 III- 3.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흐름도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사이버공격, 자연재난, 감염병 확산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서도 핵심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고 모의훈련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2022년 중에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최고 경영진의 리스크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리스크위원회²⁰⁶⁾를 설치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지속계획을 개정하는 한편, 불시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하였다.

다. 교육훈련

전략적 인재개발 프로그램 운영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연수환경 아래 “한국은행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과 “2022년 중기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마련에 주안점을 두

204) 리스크 관리와 감사 업무의 체계적인 연계 수행을 위해 2015년 도입한 리스크 레지스터는 리스크와 함께 관리 조직, 반부패지표 여부, 리스크의 발생가능성 및 영향에 대한 평가, 통제활동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5) 각국 중앙은행, BIS 및 IMF 등 100여 개 이상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2011년 12월에 가입하였다.

206) 운영리스크 분과와 재무리스크 분과로 운영된다. 운영리스크 분과는 의장(경영 담당 부총재보), 4인의 내부위원(기획협력국장, 윤리경영실장, 법무제도실장, 지역협력실장), 4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재무리스크 분과는 의장(경영 담당 부총재보), 4인의 내부위원(기획협력국장, 국제국장, 금융시장국장, 외자기획부장)으로 구성된다.

고 2022년도 연수를 운영하였다.

효과적인 책무 수행을 위해 조직 내 세대 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업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소통역량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BOK 소통 과정을 확대 운영하였다. 리더십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공통역량과 각 직급별로 필요한 핵심역량을 선별한 후 직급별로 리더십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직급별 과정인 승진자 과정 및 역량 강화 과정의 경우 관리능력과 언론대응 관련 강의 시간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스트레스 및 건강관리, 세대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등과 관련한 주제를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각 직급별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행적인 디지털 혁신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 데이터 분석기법 등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과정을 확대하고 체계화하였다. 이를 위해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빅데이터, 분산 원장, 인공지능 등의 연수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또한 업무활용도가 높은 R 및 Python 등의 과정은 빅데이터 분석·활용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직무와 학습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한 직무역량 제고

전략실행을 뒷받침하는 한편, 구성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연수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응용과정 직무연수의 신청직급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전문지식과 실무수행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자산시장 분석 과정 등을 확대 운영하였다.

한편 직무 연계성을 높이고 참가직원들의 연수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직원들이 업무현장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2개 부서 업무를 대상으로 부서실무연수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6급 및 일반사무직원 대상 실무기초과정에 사례학습(case study)을 포함하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업무연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직원들이 방송 등 미디어 앞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미디어 트레이닝 과정을 신설하여 시범 실시하였다.

비대면 연수 확대 및 자기주도 학습 강화

코로나19 이후 연수 방식에 대한 직원의 선호 변화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 방식의 연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의 확산을 뒷받침하였다. 대면연수의 필요성이 적은 연수 과정은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조직문화 등과 관련한 연수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집합연수로 실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아울러 해외 이러닝 방식의 연수과정에 리더십, 소통강화, 코딩교육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새로이 편성하거나 늘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외업무연수의 경우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위주로 운영하였다. 주요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한국은행 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높은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한편, SEACEN, IMF-STI, 싱가포르 WMI 등이 주관하는 Webinar 관련 정보를 시의성 있게 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BIS-FSI Connect, IMFx 과정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시 학습형 연수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직원들이 시간,

장소 등에 대한 제약 없이 전문성을 함양하고 학습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인력 운영

한국은행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사명감, 조직융화력 등 기본소양은 물론 전문지식 및 직무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인력운영 노력도 병행하였다.

표 III-1. 연도별 직원 채용 규모¹⁾

채용구분	(명,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종합기획직원	70	59	59	55	50	63
일반사무직원	30	19	17	20	32	27
일반기능직원	21	38	39	24	22	10
기타	8	13	11	11	5	13
합계	129	129	126	110	109	113
남	69	95	53	53	53	57
여	60	34	73	57	56	56
(비중)	(46.5)	(26.4)	(57.9)	(51.8)	(51.4)	(49.6)

주: 1) 채용실시연도 기준
자료: 한국은행

2022년에는 신입 종합기획직원(G5) 63명을 포함해 모두 113명을 채용하여 2017년 이후 110명대 이상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였다. 이는 최근 정년퇴직 등 중장기 인력수급 사정 변화를 감안한 데 주로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성별, 출신학교 등을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면접 과정에서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였다.

인력운용의 전문성 및 개방성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다. 개방형 직책(공보관)을 포

함하여 박사급 조사연구인력, IT 전문가 및 경력직 변호사 등 총 13명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였다. 또한 일반사무직원(C3) 채용 시에도 경력직원(13명)을 선발함으로써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의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운용에 따른 지방인재 채용,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을 지속한 데 이어 장애인에 대한 별도 전형과정을 운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2022년부터 신입 종합기획직원(G5) 채용 시 지역전문 부문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여성 관리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2년 말 4급 이상 여성 비중은 22.0%(3급 이상 9.0%)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표 III-2. 한국은행 여성 관리자¹⁾ 인원

	(명, %)						
	2000	2005	2010	2019	2020	2021	2022
여성관리자 (1-4급)	35	76	90	230	251	270	284
3급 이상	3	4	5	23	31	43	61
비중(1-4급) ²⁾	3.6	7.1	8.2	17.8	19.3	20.9	22.0
3급 이상	0.6	0.6	0.8	3.4	4.6	6.4	9.0

주: 1) 종합기획직원 4급 이상 중 여성직원
2) 종합기획직원 관리자 인원 중 여성 비중
자료: 한국은행

마.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한국은행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청렴·반부패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임직원의 윤리적 행동기준을 엄정하게 운용하고 고충처리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총재 직속으로 윤리경영실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청렴·반부패 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년 5월)에 맞추어 임직원들의 직무 수행 중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였다. 특히 금융경제 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로 사익을 추구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기준」을 마련하였다.

임직원이 청렴한 행동양식을 자연스럽게 일상화할 수 있도록 「책으로 배우는 청렴」, 「청렴·고충 카드뉴스 시리즈」, 「청렴 지킴이」 운영 등 공감·소통형 청렴교육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타깃형 청렴교육을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주요 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2인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였다. 2022년 중 「본부 재임주에 따른 노후 정보보호 기기 교체 도입」 사업 등에 대한 청렴시민감사관의 자문·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 중 청렴도 상위그룹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청렴한 중앙은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역량 및 효율성 강화

2022년 중 한국은행은 디지털전환의 가속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본격적 이행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디지털신기술 및 최신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디지털혁신 세칙」을 제정하여 새로운 기술을 업무에 접목하는 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신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도전적 과제를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디지털전환의 가속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데이터위원회(정책 및 전략 심의기구), 데이터 전담조직(디지털혁신실), 부서별 데이터 전문가(데이터 스튜어드) 등 3개 축으로 구성된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을 시작하였다. 데이터위원회의 첫 의결사항인 「데이터 전략계획」은 데이터 협업문화 정착, 데이터의 업무연계성 강화, 새로운 데이터 환경 대응 등 3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부서별 협업 강화를 위해 데이터 스튜어드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부서에 지정된 데이터 스튜어드는 디지털혁신실과의 협업을 통해 소관 데이터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지식을 행내에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데이터 전략계획에 따라 조사연구플랫폼을 통합데이터분석시스템(BIDAS, BOK Integrated Data Analytics System)으로 확대 개편하고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였

다. 첫 단계로서 행내 데이터 자산을 목록화하여 관리하는 데이터 카탈로그(Data Catalog)를 개발하고 기존 조사연구플랫폼의 데이터 및 분석도구(BI, Business Intelligence)와 연계하여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검색·조회·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표·차트 작성 자동화를 지원하는 그래프 공유 대시보드, 엑셀 애드인 기능을 개발하여 직원들의 데이터 생산성을 제고하고 업무효율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데이터 및 조사연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조사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텍스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신규로 입수하여 수록하였다.

넷째, 딥러닝, 자연어처리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분석기법을 정책·조사연구에 활용하였다. 빅데이터 기반 경제전망 계량경제모형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GDP 성장률 예측치가 매주 업데이트되는 당분기 경제전망(GDP nowcasting) 시스템²⁰⁷⁾을 구축하였다.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처리 모형을 활용하여 뉴스기사에 나타난 인플레이션 어조(상승·하락)를 파악하고 이를 지수화한 인플레이션 어조지수²⁰⁸⁾를 개발하였다. 또한 주택시장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 실거래가 데이터가 매일 업데이트 되는 실시간 주택시장 실거래가격지수를 개발하였다

사. IT 시스템 개선·확충

2022년 중 한국은행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10차 정보화·디지털 전략계획(ISP) 및 중장기 발전

전략(BOK2030)에 따라 IT 시스템을 개선·확충하였다.

첫째, 정보 지식의 체계적인 축적과 문서공유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한 DigiWorks 기능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2년 12월부터 전 부서로 적용을 확대하였다.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탑재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전 직원이 자유롭게 자료를 열람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였다.

둘째, 한국은행의 자산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자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결재 프로그램 설치가 별도로 필요 없는 웹 기안기를 업무포탈(BOIS)에 도입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외환전산망의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노후화됨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프레임워크 및 응용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하드웨어를 전면 교체하였다.





넷째, IT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인터넷망용 데스크톱 PC를 노트북으로 교체하였으며, 출력물 보안 및 관리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클라우드 프린팅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하고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노후화된 서버 및 통신기기를 신규 기기로 교체하였으며,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안관제 영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207)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당분기 경제전망(GDP nowcasting) 시스템 개발」(BOK 이슈노트, 2022년 2월)

208) 「인공지능 언어모형을 이용한 인플레이션 어조지수 개발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2022년 10월)

BOK 2030 : 디지털 혁신의 적극 추진

전략목표	전략과제
 디지털 전환	①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② DigiWorks 및 BOIS 고도화 ③ 경영관리시스템 개편 ④ 지급결제시스템 혁신 ⑤ 외환·채권시장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데이터 분석기반 고도화	⑥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⑦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기술 적용 업무 혁신	⑧ 신기술 기반 업무 효율화 ⑨ 신기술 활용 조사연구 고도화 ⑩ 클라우드 이용 확대
 IT 인프라 안정성 제고	⑪ 경기전산센터 구축 및 이전 ⑫ 신기술 대응 정보보호체계 수립
 디지털 역량 강화	⑬ IT 인력의 전문성 제고 ⑭ IT 외주용역 통합 ⑮ IT 운영체계 정비

자료: 한국은행

아. 통합별관 건축 추진

한국은행은 국가중요시설인 본부 건물²⁰⁹⁾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별관 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통합별관 건축은 1별관 철거, 통합별관(지상16층, 지하4층) 신축, 본관 및 2별관 리모델링이 포함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2019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3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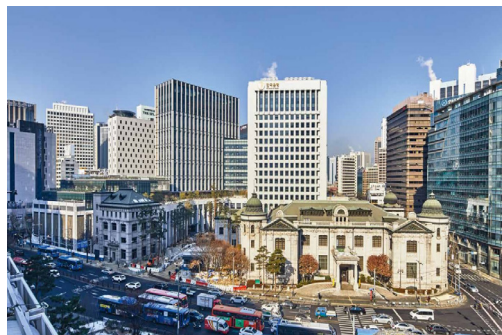
2020년 기초공사, 2021년 골조공사에 이어 2022년은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되었다. 건물 외부는 스틸 커튼월(curtain wall)과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었고 모든 건물에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삼중유리가 시공되었다. 건물 외벽 일부는 테라코타(terra cotta)를 사용하여 인접

건물의 시각적 간섭을 차단하였다. 건물 내부는 금고공사, 인테리어,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 설비공사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통합별관은 서로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건축물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건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개념('the ONE') 하에 디자인되었다. 이에 맞춰 본관 로비와 2별관 방문자센터를 연결하는 통합로비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모든 공용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통합별관 저층부는 외부 조경과 2별관, 화폐박물관의 조형을 바라볼 수 있도록 투명도가 높은 저철분 유리가 시공되었다.

한편 주52시간제 시행, 코로나19 확산, 현장 사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세 차례 연장되었다. 준공일은 최초 2022년 3월에서 2023년 2월로 변경되었다. 한국은행은 건축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이며 차질없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

그림 III- 4.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현장 (2022년 12월 현재)



자료: 한국은행

209) 한국은행 본부 부지에는 구관(준공:1912년, 화폐박물관), 본관(1987년), 1별관(1964년), 2별관(1932년) 및 소공별관(1965년) 등 총 5개의 건물이 산재해 있었다.

참고 III-1.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²¹⁰⁾

한국은행은 ‘내부 중심의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임직원, 글로벌 HR 전문 컨설팅업체 등과 함께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마련(2022년 6월)하였다. 동 방안은 조직·인사 제도 등 하드웨어 뿐 아니라 업무수행 절차, 인사운영 등 소프트웨어 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첫째, 총재의 권한을 대폭 하부위임하고 이에 맞춰 직책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부(部)” 조직 설치를 통해 부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TF”와 같은 애자일 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둘째, 모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호 리뷰와 진행

적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협력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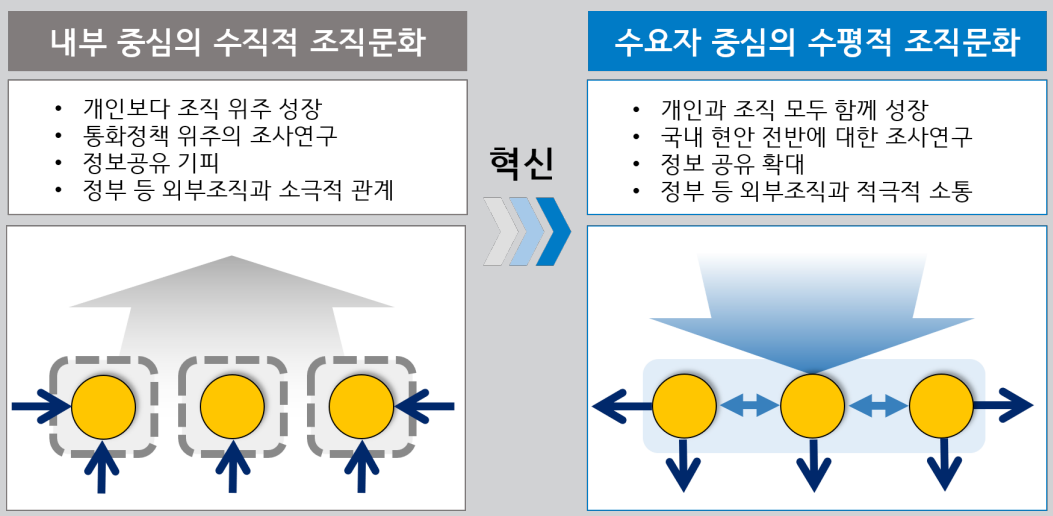
셋째, 직원들이 특정 분야에서 장기근무하며 최고의 전문성을 축적하여 조직과 개인의 전문역량이 함께 강화될 수 있도록 경제모형, 통계 등의 분야에 대해 전문가 경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넷째, 조직의 핵심역량을 지원하는 실무직원들의 직무·직제 개편 등을 통해 소속감을 고취하는 한편,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에 부합하면서도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업무성과에 대한 인정과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사회의 싱크탱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조사연구 업무를 대외지향적으로 확장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위의 혁신방안은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방안이 조직 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림 III- 5. 경영인사 혁신의 목표



2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QR BOX



QR 1

디지털 신기술을이용한
실시간 당분기
경제전망(GDP
nowcasting) 시스템 개발



QR 2

인공지능 언어모형을
이용한 인플레이션
여조지수 개발 및
시사점



QR 3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보도자료

2. 재무 현황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발권력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여 이를 금융기관 및 정부에 대출하거나, 국공채 매입 등으로 운용한다. 또한 국외부문의 외화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시중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흡수함과 동시에 외화자산을 매입·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은 외화증권 및 예치금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의 대부분은 화폐발행, 통화안정증권발행과 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손익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와 외화자산 운용수익률의 차이, 환율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본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법」 제99조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²¹¹⁾하고, 잔여 이익 중 일부를 정부의 승인을 얻어 특정 목적을 위한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나머지 순이익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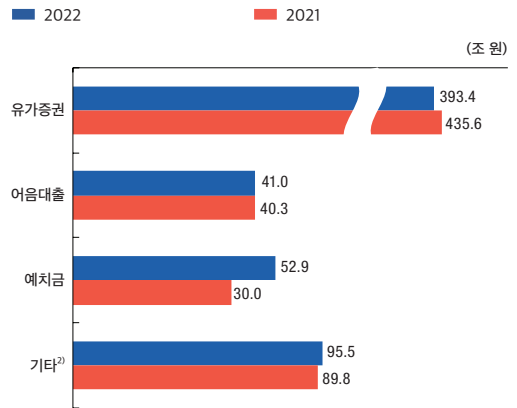
자산

2022년 말 총자산 규모는 582조 8,261억 원으로 2021년 말의 595조 6,437억 원보다 12조 8,175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화증권 규모가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다.

주요 항목을 보면 외화증권 규모가 감소함

에 따라 유가증권 잔액이 393조 3,652억 원으로 2021년 말에 비해 42조 2,190억 원 감소하였고, 어음대출과 예치금의 잔액은 각각 40조 9,750억 원, 52조 9,417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6,952억 원, 22조 9,773억 원 증가하였다.

그림 III- 6. 자산 현황¹⁾ (주요 항목) (기말 기준)



주: 1) 자산 총계는 2021년 말 596조 원에서 2022년 말 583조 원으로 13조 원 감소

2) 환매조건부매입증권 및 비유동자산이 각각 11.2조 원, 1.6조 원 증가하고 기타유동자산이 7.5조 원 감소함에 따라 5.7조 원 증가

자료: 한국은행

부채 및 자본

2022년 말 부채 규모는 560조 9,065억 원으로 2021년 말의 570조 7,646억 원보다 9조 8,581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화폐발행이 증가한 반면, 유동성 조절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통화안정증권발행은 감소한 데 기인한다.

주요 항목별로는 화폐발행 및 예금 잔액이 각각 174조 8,623억 원, 161조 1,851억 원으로 2021년 말 대비 7조 2,904억 원, 8조 6,261억 원 증가하였다. 반면 통화안정증권발행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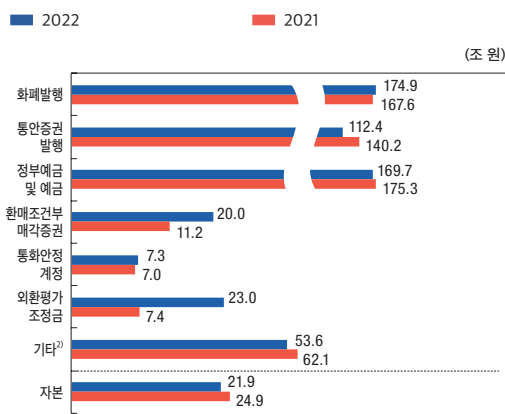
211)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법정적립금 적립기준이 결산상 순이익금의 10%에서 30%로 변경되었다.

및 정부예금 잔액은 112조 4,461억 원으로, 8조 5,014억 원으로 2021년 말에 비해 27조 7,724억 원, 14조 2,635억 원 감소하였다.

2022년 말 자본 규모는 21조 9,196억 원으로 2021년 말의 24조 8,790억 원보다 2조 9,595억 원 감소하였다.

항목별로는 적립금이 2조 3,592억 원 증가하였고, 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이 5조 3,186억 원 감소하였다.

그림 III - 7. 부채 및 자본 현황¹⁾ (주요 항목) (기말 기준)



주: 1) 부채 총계는 2021년 말 571조 원에서 2022년 말 561조 원으로 10조 원 감소

2) 기타유동부채 및 미지급법인세등 이 각각 7.4조 원, 1.2조 원 감소함에 따라 8.5조 원 감소

자료: 한국은행

손익

2022년 중 당기순이익은 2조 5,452억 원으로 2021년 중 7조 8,638억 원보다 5조 3,186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외화자산운용이자 및 외환매매익 증가 등에 따라 총수익이 증가하였으나, 외화증권매매손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 등이 크게 증가하여 총비용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

영업수익은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유가증권

이자 8,792억 원 증가하고 외환매도 규모 증가로 외환매매익이 2조 2,925억 원 증가함에 따라 2021년보다 1조 9,059억 원 늘어난 20조 9,443억 원을 기록하였다.

영업비용은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통화안정증권이자 4,565억 원 증가하고 채권가격 및 주가 하락으로 유가증권매매손이 6조 9,633억 원 증가함에 따라 2021년보다 9조 4,170억 원 늘어난 17조 6,899억 원을 기록하였다.

표 III - 4. 손익 현황

(억 원)

과 목	2021(A)	2022(B)	증감(B-A)
총수익	190,832	209,946	19,115
영업수익	190,384	209,443	19,059
(유가증권이자)	(66,787)	(75,578)	(8,792)
(외환매매익)	(144)	(23,069)	(22,925)
(유가증권매매익)	(102,567)	(67,356)	(-35,211)
영업외수익	448	503	56
총비용	83,418	176,982	93,565
영업비용	82,729	176,899	94,170
(통화안정증권이자)	(14,635)	(19,200)	(4,565)
(유가증권매매손)	(27,674)	(97,307)	(69,633)
영업외비용	689	83	-605
세전이익	107,414	32,964	-74,450
법인세 등(-)	28,776	7,512	-21,264
당기순이익	78,638	25,452	-53,186

자료: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처분

2022회계연도 당기순이익 2조 5,452억 원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7,636억 원은 법정적립금으로, 270억 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각각 적립하였으며, 나머지 1조 7,546억 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였다.

참고 III-2.

한국은행 재무제표의 특징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및 외환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금융기관 등과 재무제표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2조에 따른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대차대조표상 자본 항목 중 자본금이 없다. 다만, 손실보전에 대비하여 순이익금의 일부를 내부 적립함에 따라 이익잉여금만으로 자본을 구성하고 있다.

② 한국은행은 대차대조표상 부채 항목 중 화폐 발행이라는 계정과목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법 제47조에 따라 발행된 화폐 총액을 표시하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의 소지자에게 액면가만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③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항목 중 현금 계정에는 잔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은행법 제50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은 미발행 부채로서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은 출납창구를 통해 외부로 지급된 이후에야 부채 항목 중 화폐발행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된다.

④ 한국은행은 대차대조표상 자산 항목인 정부대출금과 부채 항목인 정부예금이라는 계정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함

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출하고 국고금을 예수하기 때문이다.

⑤ 한국은행은 대차대조표상 자산 항목 중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과 출자증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에 정부를 대표하여 출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⑥ 한국은행은 대차대조표상 자산 항목 중 특별인출권보유와 부채 항목 중 특별인출권배분이라는 계정과목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 앞으로 창출·배분하는 국제결제수단인 특별인출권(SDR)은 IMF에 대한 채권임과 동시에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IMF가 회원국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채이기 때문이다.

⑦ 한국은행은 대차대조표상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외환평가로 발생하는 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연계정인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에 계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등으로 거래의 외화자산을 보유한 가운데, 원화 환율 변동에 따른 동 자산의 평가손익을 기간 손익에 반영할 경우 재무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이다.

⑧ 한국은행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 등과 달리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특성상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도 재무제표

표 III - 5. 대차대조표 (제73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72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백만 원)

과 목	2022 말	2021 말
자 산		
I. 유동자산	559,753,156	574,136,194
1. 현금	-	-
2. 지급은	6,076,398	5,684,186
3. 특별인출권보유	18,802,596	18,220,372
4. 유가증권(주식 2)	393,365,197	435,584,182
가. 국채	32,067,645	28,959,293
나. 정부보증증권등	-	-
다. 외화증권	361,297,551	406,624,889
5. 예치금(주식 3)	52,941,651	29,964,400
가. 당좌예치금	41,428,521	23,983,588
나. 정기예치금	11,513,130	5,980,812
6. 당좌대출	-	-
7. 자금조정대출	-	-
8. 할인어음	-	-
9. 어음대출(주식 4)	40,975,015	40,279,849
10. 증권대출(주식 4)	-	-
11. 환매조건부매입증권(주식 5)	15,491,600	4,282,478
12. 정부대출금(주식 4)	-	-
13. 국제금융기구대출금(주식 4)	1,434,699	1,498,708
14. 외국환	67,712	65,099
15. 대리점	1,845,782	2,496,004
16. 본지점환	-	-
17. 기타자산	28,752,507	36,060,916
(외환평가조정금)	(-)	(-)
II. 비유동자산	23,072,962	21,507,459
1. 투자자산	22,186,111	20,848,794
가. 출자금(주식 6)	14,376,321	13,068,652
나. 출자증권	7,802,419	7,772,761
다. 전신전화사용권	19	19
라. 제가입권	7,353	7,363
2. 유형자산	830,378	597,907
3. 무형자산	56,473	60,758
자 산 총 계	582,826,118	595,643,654

과 목	2022 말	2021 말
부 채		
I. 유동부채	552,885,904	562,787,446
1. 화폐발행	174,862,272	167,571,891
2. 통화안정증권발행(주석 7)	112,446,061	140,218,466
3. 통화안정계정	7,280,000	7,000,000
4. 정부예금	8,501,437	22,764,952
5. 예금	161,185,135	152,559,014
가. 당좌예금	99,752,498	81,351,667
나. 자금조정예금	1,512,300	22,000
다. 별단예금	4,438,910	2,760,650
라. 외화예수금	55,481,427	68,424,697
마. 기타외화예금	-	-
6. 환매조건부매각증권(주석 8)	20,000,000	11,153,400
7. 특별인출권배분	17,929,213	17,638,360
8. 본지점환	-	-
9. 기타부채 (외환평가조정금)	50,681,786 (23,026,342)	43,881,363 (7,389,912)
II. 비유동부채	8,020,634	7,977,162
1. 차입금	-	-
2. 퇴직급여충당금	218,216	204,401
3. 출자증권발행	7,802,419	7,772,761
부 채 총 계	560,906,539	570,764,608
자 본		
I. 잉여금	21,919,580	24,879,046
1. 이익잉여금	21,919,580	24,879,046
가. 법정적립금	15,936,586	13,577,432
나. 임의적립금	3,437,768	3,437,768
다.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2,545,226	7,863,846
자 본 총 계	21,919,580	24,879,04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82,826,118	595,643,654

표 III - 6. 손익계산서 (제73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2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백만 원)

과 목	2022	2021
I. 영업수익	20,944,304	19,038,390
1. 수입이자와 할인료	11,613,647	8,621,125
(1) 유가증권이자(주석 9)	7,557,820	6,678,666
(2) 예치금이자	269,169	27,412
(3) 당좌대출이자	1,919	435
(4) 할인어음할인료	-	-
(5) 어음대출이자	249,085	109,273
(6) 증권대출이자	-	-
(7) 자금조정대출이자	210	16
(8) 환매조건부매입증권이자	138,466	1,612
(9) 정부대출금이자	27,329	884
(10) 국제금융기구대출금이자	18,171	830
(11) 수입잡이자	3,351,480	1,801,997
2. 수입수수료	174,550	137,804
3. 유가증권매매익	6,735,606	10,256,699
4. 통화안정증권상환익	113,603	8,348
5. 외환매매익	2,306,897	14,414
6. 지급은익	-	-
II. 영업비용	17,689,914	8,272,908
1. 지급이자와 할인료	7,013,754	4,629,718
(1) 예금이자	870,180	1,504,219
(2) 통화안정계정이자	221,663	54,624
(3) 통화안정증권이자	1,919,974	1,463,502
(4)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주석 10)	477,993	108,496
(5) 차입금이자	-	-
(6) 지급잡이자	3,523,944	1,498,877
2. 지급수수료	230,339	173,837
3. 유가증권매매손	9,730,716	2,767,437
4. 통화안정증권상환손	12	54,457

과 목	2022	2021
5. 외환매매손	-	2,000
6. 지금은손	-	-
7. 국제금융기구출연금	53,298	-
8. 화폐제조비	121,387	128,388
9. 퇴직급여	37,459	30,940
10. 감가상각비	23,765	28,665
11. 무형자산상각비	19,710	19,752
12. 일반관리비	459,474	437,714
III. 영업이익	3,254,390	10,765,483
IV. 영업외수익	50,341	44,787
1. 자산처분익	215	4,541
2. 잡익	50,126	40,246
V. 영업외비용	8,332	68,854
1. 출연금	5,000	65,000
2. 자산처분손	1,727	3,005
3. 잡손	1,604	849
VI. 법인세등공제전순이익	3,296,400	10,741,415
VII. 법인세등	751,174	2,877,570
VIII. 당기순이익	2,545,226	7,863,846

표 III - 7. 자본변동표 (제73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2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백만 원)

구 분	자본금	이익잉여금	합계
I. 2021년 1월 1일(전기초)	-	22,171,299	22,171,299
II. 정부세입 납부		-5,121,987	-5,121,987
III. 농어가기금 출연		-34,112	-34,112
IV. 당기순이익		7,863,846	7,863,846
V.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	24,879,046	24,879,046
VI. 2022년 1월 1일(당기초)	-	24,879,046	24,879,046
VII. 정부세입 납부		-5,478,077	-5,478,077
VIII. 농어가기금 출연		-26,615	-26,615
IX. 당기순이익		2,545,226	2,545,226
X.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	21,919,580	21,919,580

표 III -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73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2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73기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 2023년 2월 23일
제72기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 2022년 2월 24일

(백만 원)

과 목	2022	2021	
I.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2,545,226	7,863,846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2. 당기순이익	2,545,226	7,863,846	
II. 이익잉여금처분액		2,545,226	7,863,846
1. 법정적립금 적립	763,568	2,359,154	
2. 임의적립금 적립	27,033	26,615	
가. 농어가기금출연목적	(27,033)	(26,615)	
나. 손실발생대비목적	(-)	(-)	
3. 정부세입 납부	1,754,625	5,478,077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재무제표 주석

1.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가. 개요

재무제표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 제8조 및 「한국은행 정관」 제33조에 의거 제정된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다. 「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관습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는 중앙은행의 특성상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없으므로 작성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경우 이익금 처분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석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재무제표로 작성하고 있다.

나. 자산·부채의 계상 및 평가기준

자산은 취득시점에 계상하고 부채는 부담시점에 계상하고 있다.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1) 유가증권

유가증권 중 채권은 상각후원가로, 주식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취득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채권에 대해 개별법을 적용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

(2)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투자대상물에 대한 투자원가로 계상하고 있다.

다. 손익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계상하고 있다.

라. 외화환산기준 및 외환매매손익 인식기준

(1) 외화환산기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고 있으며, 환산 시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연계정인 외환평가조정금계정에 계상하고 있다. 외화표시 수익과 비용은 거래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다.

(2) 외환매매손익 인식기준

외환매매손익은 원화를 대가로 보유외환을 매각하는 경우에 매도한 외환의 대응원화금액에서 동 외환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원화금액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다.

마. 환매조건부매매거래

환매조건부매매거래는 증권을 담보로 한 자금의 대차거래로 처리하고 있다. 환매조건부로 증권을 매입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환매조건부매입증권계정에 계상하고, 환매조건부로 증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매각증권계정에 계상하고 있다.

바. 유형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1)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 건물은 정액법을, 건물 이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을 각각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다.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2) 무형자산

무형자산 중 개발비는 정액법을, 소프트웨어는 정률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상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다.

사.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종업원이 부담할 국민연금납입액의 일부를 은행이 대납하고 종업원 퇴직 시에 퇴직금에서 회수하는 국민연금전환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아. 법인세등

법인세등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와 동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표시하고 있다.

2. 유가증권

유가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2022 말	2021 말
과 목	종 목		
국채	국고채권	32,067,645,376,320	28,959,292,668,944
정부보증증권 등	-	-	-
외화증권	외국정부채 등	361,297,551,392,302	406,624,889,085,299
합 계		393,365,196,768,622	435,584,181,754,243

3. 예치금

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2022 말	2021 말
과 목	예치기관		
당좌예치금	국외금융기관	41,428,521,167,577	23,983,588,411,678
정기예치금	국외금융기관	11,513,129,569,741	5,980,811,783,193
합 계		52,941,650,737,318	29,964,400,194,871

4. 대출금

대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2022 말	2021 말
과목	대여처		
어음대출	국내금융기관 등	40,975,014,884,224	40,279,849,000,000
정부대출금	기획재정부	-	-
국제금융기구대출금	IMF	1,434,698,934,858	1,498,707,598,241
증권대출	국내금융기관	-	-
합계		42,409,713,819,082	41,778,556,598,241

5. 환매조건부매입증권

환매조건부매입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2022 말	2021 말
과목	상대처		
원화환매조건부매입증권	국내금융기관	15,491,600,000,000	4,000,000,000,000
외화환매조건부매입증권	국외금융기관	-	282,477,773,377
합계		15,491,600,000,000	4,282,477,773,377

6. 출자금

출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2022 말	2021 말
과목	출자대상		
국내출자금	한국수출입은행	1,165,000,000,000	1,165,000,00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765,000,000,000	645,000,000,000
	소계	1,930,000,000,000	1,810,000,000,000
국외출자금	국제금융기구	12,446,320,693,194	11,258,651,742,502
합계		14,376,320,693,194	13,068,651,742,502

7. 통화안정증권발행

통화안정증권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2022 말	2021 말
이표채	102,986,060,639,045	130,128,466,439,291
할인채	9,460,000,000,000	10,090,000,000,000
합계	112,446,060,639,045	140,218,466,439,291

8. 환매조건부매각증권

환매조건부매각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2022 말	2021 말
과목	상대처		
원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	국내금융기관	20,000,000,000,000	11,000,000,000,000
외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	국외금융기관	-	153,399,662,052
합계		20,000,000,000,000	11,153,399,662,052

9. 유가증권이자

유가증권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과목	2022	2021
원화증권이자	626,723,698,847	550,386,532,126
외화증권이자	6,931,096,483,888	6,128,279,624,783
합계	7,557,820,182,735	6,678,666,156,909

10.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과목	2022	2021
원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477,993,102,063	108,496,217,256
외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17,939	-
합계	477,993,120,002	108,496,217,256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국은행 총재 귀하

감사의견

우리는 한국은행(이하 “은행”)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2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물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은행의 재무제표는 은행의 2022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 및 자본의 변동을 한국은행법 제8조 및 한국은행 정관 제33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은행의 회계처리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 주석 1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주석 1은 은행의 재무제표는 한국은행법 제8조 및 한국은행 정관 제33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되며, 동 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관습을 적용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은행법 제8조 및 한국은행 정관 제33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회계규정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은행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은행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은행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요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은행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삼 덕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김 명 철



2023년 2월 17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은행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